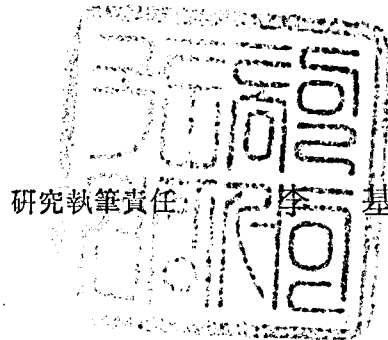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南北韓關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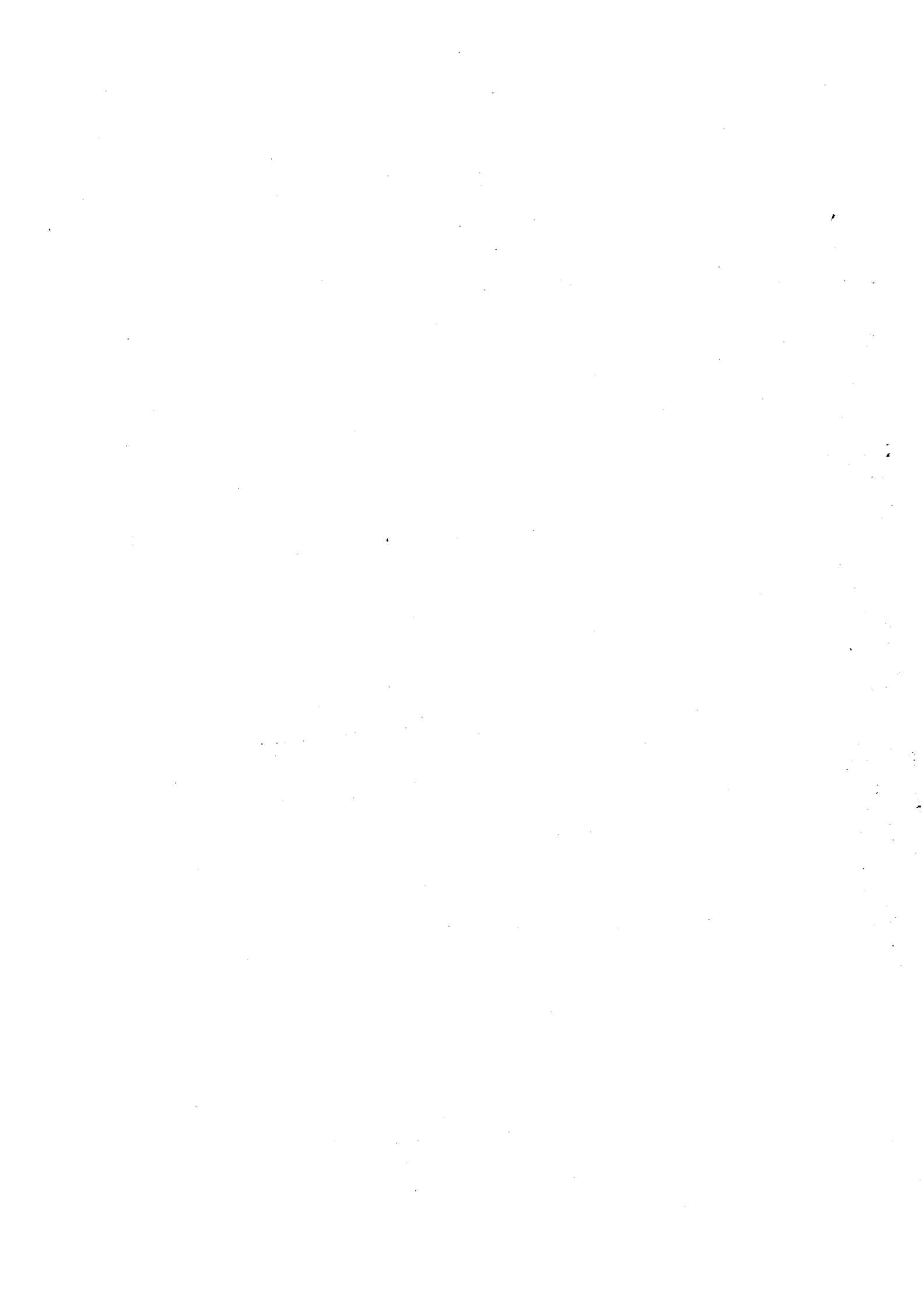
# 南北韓關係의 展開樣相 및 發展展望에 關한 研究



研究執筆責任 李基鐸 (延世大學校)

刊行責任 尹炳益 (政策企劃室 研究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 目 次

第一章 序 論 .....	3
第二章 「許 淡」의 「對美平和協商案」의 發想과 그 展開 .....	9
第一節 「對美平和協商案」의 內容 .....	9
I. 美軍의 南韓駐屯의 認定 .....	13
II. 美軍에 對한 協商次元과 그 水準 .....	16
ㄱ. 美軍의 駐屯形態에 對한 理解 .....	16
ㄴ. 協商의 意圖 .....	18
III. 北韓의 對南保障論 .....	20
- 韓半島安全保障의 再編成 - .....	20
第三章 “許 淡”案以後의 南北韓關係의 展開樣相 .....	25
第一節 “卡特政權”以後의 變化와 南北韓關係 .....	25
I. “美帝”에서 “美國”으로 .....	25
II. 金日成의 對美 “메세지” .....	26
III. 美國의 重要한 反應 .....	27
IV. 許 淡의 美國訪問 .....	28
V. “봉고”에 의한 北韓의 對美접촉의사 전달 .....	29

VI. 美國의 北韓여행해제.....	30
VII. “티토”大統領과 金日成간의 領首會談과 韓半島問題 .....	31
ㄱ. 金日成의 對美 秘密通書의 “티토”.....	31
ㄴ. “티토”의 對“카터”메세지 .....	32
ㄷ. “티토”의 平壤訪問과 單獨會談 .....	33
ㄹ. “카터”의 反應.....	35
第四章 北韓의 勞動黨과 政策決定體系의 變化 .....	37
第一節 北韓의 對南政策 및 對南戰略의 基本的性格 .....	38
第二節 勞動黨의 政策決定體系의 變化 .....	42
第五章 南北韓關係의 展開樣相과 發展展望 .....	46
第一節 “맨스필트” 모델 .....	46
第二節 美國의 北韓에 對한 “經濟的인 接近說” .....	48
第三節 “키신저”의 “4強에 의한 保障”外交 혹은 “三者접촉”問題 .....	50
第四節 北韓의 “軍縮提議” .....	52
第六章 結 論 .....	55
〈註〉 .....	56

## 第一章 序 論

“7·4 共同聲明書”로 시발하였던 南北關係의 政治的 水準에서의 關係 形成은 현재 完全한 단절로 들어가 있다. 南韓과 北韓과의 직접적인 政治的 關係는 現在로서는 단절 상태라고 할 수 있다.

本論文에서는 첫째 南北關係에서 순수한 “軍事的 次元”의 문제점이나 展開過程은 연구 대상에서 배제한다. 南北關係에서 軍事分野를 전면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非軍事的 분야”에서의 南北關係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論文을 정리한다. 둘째는 本論文에서 의도한 바는 “政策的 隕點”에서 모든 理論을 전개하였다는 점이다. 政策的 立場에서 理論을 전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非軍事的 분야”에서의 南北關係라고 할 때에도 研究 범위는 광범위 하다. 北韓의 国内政治, 外交, 經濟 등에 걸치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南北關係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南北關係를 앞으로 把握하는 데에는 때로는 軍事的 분야를 포함하여 다각적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把握없이도 北韓이 앞으로 對南政策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하는 問題는 쉽게 또한 종합적으로 把握하

기란 어렵다고 생각한다.

本論文은 아래와 같은 구상으로 理論을 전개하여 갔다.

첫째 필자의 觀点 및 起點은 北韓의 對南政策 展開에 있어 그 전환점은 “許淡”의 “對美平和協商”案에서 모든 政策的 變化 혹은 現在나 앞으로 진행 될 政策的 起點이 있다고 평가한다.

“許淡”의 “對美平和協商”案은 사실상 고도의 總合적인 對南政策의 核心部分이라고 평가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精確한 分析과 의도를 把握하지 않고서는 北韓의 對南戰略 把握이란 어려우며 나아가서는 앞으로의 南北關係의 전개 양상에 대한 예측은 어렵게 되어 있다고 사료된다.

1974年의 “許淡”의 “對美平和協商”案은 사실상에 있어서는 對美政策이 아니라 對南政策의 큰 일환으로 나온 것이며 對南政策의 “修正”이라고도 평가 할 수 있는 北韓의 變化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精確한 分析과 評價를 가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南北關係의 진전에 그 어떤 예측의 기초 資料가 되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南北關係의 새로운 전개에 대한 把握과 政策的 接近에서 北韓 노동당의 “政策決定體系”에 대한 變化 혹은 態度에 대한

研究이다. 이는 前者의 “許淡”의 “對美平和協商案”과도 깊은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여기에서 特別히 주목하여 分析하고 싶은 것은 北韓노동당의 “政策決定體系”의 내용이 어떻게 變하여 對南 혹은 對美協商 등에서 展開되고 있고 또 앞으로 展開 될 것인가하는 문제인 것이다. 사실상 “對美協商”에서 보듯이 北韓의 기본 政治的 立場이었던 “美帝”라는 提제에서 北韓은 이탈하고 있으며 도리어 北韓은 그의 生存을 위한 安保 및 經濟的 측면에서 서방 혹은 특히 美國에 對한 接近을 시도하고 있다는 데서 인 것이다. 이는 사실상 北韓의 基本政策 혹은 “路線”의 修正이라고 볼 것인가 아닌가하는 문제가 있으며 分析과 토의를 要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北韓의 노동당 특히 政治局은 北韓의 모든 政策決定의 母體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北韓 노동당 政治局이라는 決定體系는 大略적으로 하나의 전통적인 패턴을 이루어 오고 있었다. 직선적이며 dogmatic이었고 修正主義的인 對内外의 경향에 對해 絶對적으로 저항하는 등등의 諸特徵을 갖고 있었다. 특히 對南政策에는 항상 強硬策이 그 기본이었고 둘째로는 특히 對美政策에 對해서는 거의 “호전적”態度和 政策 결정이었으며 이러한 노동당의 政策決定

体系에는 항상 “教条”的인 측면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最近 특히 “許淡”案을 起点으로하여 北韓노동당 政策決定体系 그 自体가 본질적으로 變하고 있다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北韓 노동당의 對南政策에서 “目的” 그 자체가 變한다는 것이 아니다. 決定体系과정 그 자체가 상당한 變化를 경험하여 가고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한 면밀한 分析 없이는 앞으로 北韓의 對南政策에 있어 직접적인 “對南戰略”이나 혹은 對南政策에 따른 北韓의 對外政策 혹은 이에 따른 제반정책에 대한 예측은 많은 난점을 안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北韓 노동당의 決定体系를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하여 계속 認識한다고 할 때에는 北韓의 제반 정책을 관찰하고 판단하는데 차질을 초래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本論文에서 北韓 노동당 政策決定体系의 變化에 대한 징조를 다각적으로 分析해 보고 이러한 變化 속에서 北韓의 對南政策이 어떻게 變할 것인가 하는 근거를 理論적으로 찾아 보는데 주력 하였다.

다음은 南北韓關係의 전개양상 및 전망에 對한 研究에서 우리가 흔히 基本政策에 대한 論理的인 “틀”이 없이 南北韓關係를 論할 때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南北韓 關係에 대한



기본적인 “틀”에 대한 理論을 전제로 하여 그 전개양상 및 발전전망을 論하는 것으로 한다. 사실상 南北關係를 論할 때에 基本政策의 결여는 南北韓關係를 책략적인 對策으로 보기가 쉬운 것이다. 南北韓關係에는 물론 “策略”의 측면이 없지 않으나 기본 관계를 떠난 “策略”은 편의적인 政策에 빠지기 쉬우며 수습할 수 없는 결과를 後에 남게도 될 때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언제나 基本政策에 대한 研究나 理論을 전제하고 南北韓關係에 대한 展望을 論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서 基本的인 南北韓關係의 論理와 틀을 편성하는 데에 몇가지 점을 論하였다.

끝으로 이상의 몇가지 問題點을 論하고 特히 南北對話가 단절된 이래의 南北韓關係의 특징을 南北韓 關係라는 展望에서 보기로 하였다. 그 특징 중에는 역시 國際的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北韓이 南北對話를 중단 시키고 對美接近政策이나 美國과의 본격적인 協商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그 중 國적인 目標가 역시 對南政策에 있다는 것에서 最近 몇년간의 北韓의 對南 추세를 끝으로 보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우리 측의 立場이나 몇가지 문제점을 論하는 것으로 本論文의 構成을 편성 하였다.

다만 資料면에 있어서 本論文의 필자가 직접 간접적으로 “인터뷰”라는 形式의 資料가 활용된다. 따라서 論点에서 필요한 “註”는 가급적 중요한 것에 한하여 부기한다. 1) “인터뷰”에 대해서는 공개될 수 있는 것에 한해 註를 부치기도 하였다. 기타는 생략 하였다. 本論文은 政策論文이라는 각도에서 作成하였으므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最少限의 註를 추가한다.

## 第二章 “許淡”의 “對美平和協商案”의 발상과 그 展望

北韓의 對南政策의 本질적 變化의 근원은 1974 年에 發表된 “許淡”案<sup>2)</sup>이라고 통칭하고 있는 “對美平和協商案”에서 起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許淡”이 發表한 “對美平和協商案”에 대한 면밀한 分析은 앞으로의 對南關係라는 데서 北韓의 政策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시사가 된다고 볼 수 있다.

### 第一節 “對美 平和協商案”의 內容

“對南平和協商案”은 “許淡” 北韓外相에 의해 1974 年 3 月 25 日 “最高人民會議” 第五期 第三次 會議에서 發展되었다.<sup>3)</sup> “許淡”의 발표는 그 發表와 동시에 “英文”으로 全世界에 보도한 것으로 되어있다. 때로는 연설문과 동시에 英文원고가 通信을 통해 發表된 것으로 되어 있다. 때로는 “英文原稿”가 “許淡”의 演說 이전에 이미 發表되어 공개되었다고 하는 說도 있다.

따라서 “許淡”의 “對南平和協商案”이라는 것은 事實上 北韓의 “對美政策”의 전환을 그만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發表와 동시에 英文原稿가 발표되는 예는 과거에는 중요한

연설에 있어서도 드문 예인 것이다. 다만 유엔에서의 비망록과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英文原稿가 同時에 나간 例는 드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許淡”의 “對美平和協商案”이라는 것이 얼마나 北韓의 對美政策에 對한 겨냥을 한 것인가 하는 것을 政策的으로 시사해 주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事實上 北韓의 對南政策 특히 對南對話를 단절한 이후 北韓의 政策이 旋回하는 대전환점은 이 “許淡”의 “對美平和協商案”을 기점으로 하여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對南戰略도 “許淡”의 “對美平和協商案”이라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는 北韓의 對南政策 方向을 예측할 수 없다고 본다.

“許淡”의 “對美平和協商案”은 물론 形式에 있어서나 內容에 있어서나 北韓의 外交政策의 일환으로 간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상에 있어서는 “許淡”의 “對美平和協商案”은 對南戰略의 일환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단순한 美國에 대한 北韓의 “外交政策”이라는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본다. 北韓이 對美政策의 形式을 通하여 앞으로 對南政策으로 강력하게 나타날 要因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許談”의 “對美平和協商案”의 내용의 要點은 아래와 같다.

즉,

첫째, 雙方은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직접적 武力 충돌의 모든 위험성을 제거한다. 美國은 南朝鮮 당국자들로 戰爭挑發 策動과 朝鮮人民들에 대한 殘虐적 彈壓 行爲를 使 賦하지 않고 비호하지 않으며 朝鮮의 北과 南이 南北共同聲明에 따라 자주적으로 나라를 統一할 것과 이를 방해하지 않으며 朝鮮의 內政에 일체 간섭하지 않을 것에 對한 義務를 질 것이다.

두째, 雙方은 武力增強과 軍備競爭을 그만두고 朝鮮경외로부터 일체의 武器와 戰爭裝備 軍수물자의 반입을 중지 할 것이다.

세째 : 南朝鮮에 있는 外國軍隊는 유엔의 모자를 벗어야 하며 가능한 한 가장 빠른 기간 안에 일체의 武器를 가지고 모두 철거를 하도록 할 것이다.

네째 : 南朝鮮에서 모든 外國軍隊가 철거한 후 朝鮮은 그 어떤 外國의 軍事基地나 作戰基地로도 되지 않을 것이다.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最高人民會議는 이와같은 措置들을 전제로하고 朝鮮人民主義共和國과 美合衆國間에 平和協定을 위한 會談을 進行할 것을 正식으로 提의한다.

會談은 지금 판문점에 있는 軍事停戰 委員會보다 한급 높은 代表로 구성하며 會談場所로는 지금의 판문점. 또는 第三國으로 定할 수 있다.

이상이 “許淡”의 “對美平和協商案”의 요지인 것이다. 上記한 “許淡”案은 고도의 “政治性”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근본적인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美軍이 撤収하라”는 案項인 것이다. 英文에서 보다 명백히 그 意味가 전달되고 있다. 즉 “가능한 조속한 시일 內에 美軍이 撤収하라”는 말의 英文 표기는 아래와 같이 되어있다. 즉,

“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

상기 항목은 실제상 北韓의 對南政策 및 對美政策에 있어서 근본적 修正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許淡”案의 基本的 발상에 대한 몇가지 問題點의 제기와 함께 그 評價를 하여 본다. 이러한 評價는 앞으로 南北韓間의 關係를 目的으로하는 北韓의 “의도”를 把握하는 데나 앞으로의 南北韓關係의 전개에서 그 기준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要因이 되기 때문이다.

## 1. 美軍의 南韓駐屯의 認定<sup>4)</sup>

“許淡”案에서 가장 중요한 골자는 北韓이 그의 政治體系를 확립한 이후 처음으로 美軍의 南韓駐屯에 대한 사실 그 自体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언급 혹은 政策 發表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北韓은 그의 對南政策에서 “傀儡政府論”을 기초로하여 항상 對南政策을 展開하여 왔고 “傀儡政府論”을 기초로하여 對外政策을 展開해 온 것이다. “傀儡政府論”이라는 것은 기초적으로 美軍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南韓에 어떤 政府가 서든 間에 北韓은 “傀儡政府”라 하였다. “傀儡”의 의미다. 美國軍事力の 뒷바침없이는 南韓政府는 成立할 수 없거나 美軍이 撤収한다면 自動적으로 붕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傀儡政府論”인 것이다.

이러한 “傀儡政府論”은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항상 계속되어 온 것이었다. 따라서 北韓의 對南政策은 항상 美軍에 대한 政策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南韓의 政權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美軍人으로 美軍의 撤収는 곧 南韓에 對한 赤化라는 형태로 자동적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理論이었다.

따라서 北韓의 政治 구호 속에는 항상 美軍의 “속각 撤収”

라는 形態로 表現되고 있었던 것이다. “즉각 撤収”라는 표현이  
나 정치구호는 北韓의 對南政策이나 外交政策에서 기본적인 구호였  
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美軍의 韓半島 포기라는 생각은 韓半島에서의 左  
翼思想의 근원을 이루는 것이기도 한 것이었다. 韓國戰爭을 계기  
로 하며 이러한 思想은 대부분 無産되었으나, 歴史的으로는 美軍이  
韓半島를 중당에 포기한다는 思想이 韓國左翼思想의 기본이 되어  
있었다. 5) 그러한 근원은 사실상 北韓의 對南政策의 기본정책에서  
연유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美軍은 “즉각 撤収해  
야 하며” 또는 “無條件” 撤収해야 한다는 것이 北韓의 基本  
政策이었다.

“無條件”이라는 말은 “協商”이 필요없다는 말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美軍의 “무조건”적인 “즉각 撤収”라는 것이 北  
韓의 對南政策이나 對外政策을 전개하는 근원이었고 對外 對内の  
政策展開의 기초적인 “발상”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許淡”案에서 歴史的으로 처음으로 北韓은 “美軍의 南韓駐屯”  
을 “認定”한 것이다.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 내에 撤収”하라  
는 어구는 사실상 두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할 수 있는 것



이다. 즉,

첫째는 “南韓에 美軍駐屯을 현실적으로 받아 드린다는 現實 認定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過去에 있어서 美軍駐屯을 현실적으로도 北韓은 認定치 않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처음으로 “許談”案에서 美軍의 南韓駐屯을 현실적으로 認定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두째의 意味로는 “美軍駐屯과 撤収”에 대한 協商的 의미에서의 “期間”을 “즉각”으로부터 “조속한” 또는 “가능한 한의 期日 內에”라는 말로 表現한 점이다. 이는 北韓의 對美軍政策을 보아서는 과거와는 달리 本질적 變化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각”撤収로 부터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 內에”撤収라는 말로 表現한 것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것이다.

처음으로 北韓은 駐韓美軍의 存在를 “協商”次元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美軍駐屯과 撤収를 北韓과 美國間에 協商的으로 처리 하겠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 보듯이 “宣傳的”인 次元이 아니라 “協商的 차원”이라는 點에서 전환 點인 對美政策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II. 美軍에 對한 協商 次元과 그 水準

事實上 韓半島 問題에 있어서 美軍이라는 軍事的 要因은 南北 韓에게 있어서 重要的 安全保障上의 基本的 要因인 것이다. “許淡”案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韓半島의 安全保障上의 基本 要因의 變動問題를 北韓과 美國이 兩者會談 形式으로 協商하겠다는 것으로 提議한 것이다. 다시 말해 韓半島의 安全體系에 對한 “解体”와 “再編成” 과정에 있어서 北韓과 美國이라는 兩者 形式으로 協商하여 美軍의 駐屯과 撤収를 協商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인 것이다. 물론 제의에서 보듯이 南韓은 協商過程에서 탈락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美軍 撤収와 駐屯形態에 對한 “協商次元”에<sup>6)</sup> 對한 解釋은 金日成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金日成 스스로가 日本의 “우즈노미야·도꾸마”와의 會談<sup>7)</sup>에서 명백하게 “許淡”案 전반에 對한 해설 즉 그 의도와 이에 對한 論점을 말하고 있다. 金日成의 發言을 근거로 하여 그 基本的 發상을 分析하여 본다.

### 1. 美軍의 駐屯形態에 對한 理解

金日成은 다음과 같은 美軍의 協商的 發言을 하고 있다.  
즉 “우즈노미야”의 질의인 질문은 다음과 같이 進行된다.

우즈노미야 “미국이 韓國에 駐屯시키고 있는 것은 8)

- ㄱ) 北이 南進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 ㄴ) 南韓政權을 눌러 北進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 ㄷ) 美國이 南韓으로부터 撤収한다면 南韓이 日本을 끌어 들일 것이기 때문에 美軍이 駐屯을 한다”고 하는 3가지를 들어 질문한 것에 대하여서,

金日成 “그러한 理由가 成立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美軍이 南韓으로 부터 撤収할 경우에도 상징적 軍隊를 계속 남겨두는 모양이다. 우리들은 ( 필자주, 美國과 北韓 兩者 지칭 ) 이러한 점을 직접 만나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이 金日成 스스로가 “許淡”案에서 지적하고 있는 美軍의 미래의 駐屯 形態에 대한 協商을 정식으로 제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단순한 “宣傳的 次元”이 아니라 “協商的”次元인 것이다.

以上에서 보듯이 北韓은 美軍 駐屯에 대해서 協商次元으로 이끌어 갈려는 “의도”가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本論文 필자의 解釋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北韓의 對美軍에 대한 政策이 修正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 ㄴ. 協商의 意圖

協商의 意圖는 金日成이 스스로가 말하고 있듯이 “象徴的인 美軍”으로 남는다는 데에서 잘 알 수 있다.<sup>9)</sup> 즉 北韓으로서는 “段階的인 美軍撤収”를 일단 받아 들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段階的이란 말은 일차적으로 美軍의 南韓 駐屯이 “象徴的으로” 남는다는 단계인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歩兵 2師團이 예로 “戰術核”을 제외 시키고 또한 完全한 “戰鬪師團”으로서 남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美歩兵 2師團이 일개 연대라도 撤収한다면 歩兵 2師團은 完全한 戰鬪師團으로서의 “機能”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는 北韓에게 있어서 위협을 주는 美軍으로서는 남지 않게 된다는 말이 되며 南北韓의 軍事 밸런스를 北韓에게 유리하게 전개 시킨다는 말이 된다. 金日成 스스로가 말하고 있듯이 “象徴的 美軍”으로 南韓에 일차적으로 남게 하고 다음 段階로 完全한 美軍撤収를 進행시키도록 協商한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즉 역시 “우즈노미야”와의 대담에서 잘 表現되고 있다. 즉,

우즈노미야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美國이 있는 동안 (美軍

駐屯하는 동안) 朴政權이 참지 못하고 美國을 끌어 드리는 形式으로 戰爭을 발발시킬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다.”

金日成 “물론 南韓政府가 모험적으로 나올 可能性은 없지 않다. 그러나 美國이 駐屯하고 있는 동안에 美國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sup>10)</sup> 우리는 (北韓) 자제할 것이다. 이를 美國에게 전달해 달라.” <sup>11)</sup>

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은 美軍의 南韓駐屯이 北韓에게 있어서도 安全保障上 사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아마도 필자의 견해로는 金日成은 美軍의 駐屯 사유가 다만 南韓의 보호에만 있었다고 생각 하였던 것에 대한 變化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金日成 스스로의 政策的인 變化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첫째, 美軍의 撤収는 자연히 유엔司의 해체로 연결 될 것이며 유엔司의 解体는 作戰指揮權의 解体를 意味하며 작전지휘권의 美軍으로부터 韓國軍에 대한 이양은 필연적으로 北韓이 南韓의 軍事力에 대한 責任을 현재와는 달리 져야 한다는 데서 하나의 安全에 대한 공포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美軍 뒤에서 몰래 南韓의 軍事가 北侵할 수 있을까”하는 독백에서 잘 表現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따라서 당분간 “상징적”인 美軍을 駐屯시킨다는 協商的인 명목下에서 작전지휘권을 美軍으로 하여금 장악하게 계속 시킴으로서 北韓의 安全上的 보호를 目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韓國軍의 작전지휘권은 美國에게 있는 것이다.

美軍이 韓國軍을 통제 함으로서 편리한 시기까지는 北韓의 軍事的 安全을 도모한다는 것이 協商 의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金日成 스스로가 말하고 있다. 즉, “美國도 朴大統領에게 자제시켜야 한다. 美國자신도 自制力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美國으로 하여금 南韓은 건제케 한다는 것이 協商次元의 의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Ⅲ. 北韓의 對南 保障論

#### — 韓半島 安全保障의 再編成 —

“許淡”의 “對美平和協商案”에서의 중요한 北韓의 政策的 目標은 金日成 스스로가 “許淡”案을 풀이하는 데서 밝혀지고 있듯이 소위 “對南保障論”인 것이다. 12) 美軍의 점차적인 撤収와 함께 새로이 재편될 韓半島 安全體系에 있어서 새로운 “원리”로

金日成은 “對南保障論”을 들고 나온 것이다. 여기에서도 직접적인 金日成 스스로의 論理를 들어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 즉 우즈노미야의 美軍駐屯 이유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서

金日成은

“우리들은 南進하지 않는다. 이를 保障한다. 스파이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保障한다.” 또한 다른 구절에서 “南進하지 않는다는 우리들의 保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美國과 직접 단판하여 定하겠다. 美國이 南韓으로 하여금 직접 戰爭을 시키지 않는다는 保障이 成立한다면 우리들도 이에 對한 保障을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軍備를 축소할 일이며 南朝鮮에 武器를 주지 않는 일이다.”

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對南保障論은 앞으로 4者會談이나 있을 수 있는 強大國 協商을 目的으로 하는 政治的 제스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흥미있는 것은 이러한 對南保障을 하면서도 金日成은 “그러나 자연적으로 南韓에서 革命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保障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韓半島의 安全保障體系의 再編成 過程에서 對南保障論이라는 것은 통하여 北韓

이 安全保障의 再編成에 대한 주도권을 掌握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保障論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상적인 언급이 되고 있다.

즉,

金日成 “美國이 一部 人事는 내가 (金日成) 南進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내가 美國에 편지를 보냈으나 회답이 없다. 반대한다는 회답도 없다…… 美國은 어떤 第3世界 指導者에게 “今後 機會를 보아서 秘密會談을 하자고 말하고 있다. 또는 “北이 美國에게 保障을 한다면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으나 나에게서는 무슨 保障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保障이라는 데서 美國의 의도에 對한 不信을 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美國이 말하는 保障이라는 것은 물론 對南軍事保障이라고 할 수 있으며

美軍의 南韓 駐屯에 對한 北韓의 認定임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金日成 스스로가 對南保障을 말하면서도 美國이 요구할 北韓에 對한 對南保障에 대해서는 不信感을 갖고 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金日成이 말하고 있는 “對南保障論”은 韓半島의 安全体



系를 金日成의 保障下에 組織하겠다는 말이 되는 것이며 의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金日成이 바라는 美國에 對한 “保障” 요구가 있다. 즉 北韓이 美國에게 對하여 要求하는 保障이 있다. 다음과 같이 對南政策의 一環으로 要約할 수 있다. 즉,

첫째, 美國으로 하여금 南韓으로 해서 北進시키지 말 것이라는 要求 또는 保障이다. 이러한 것은 “우즈노미야”와의 직접적인 對談에서 종종 나오고 있다. “南韓에게 戰爭 못하도록 自制시키라” 또는 美國없이 戰爭 못 할 것이라는 등에서 잘 表現되고 있다.

둘째, 보다 重要하고 앞으로의 南北韓關係의 새로운 展開에서 暗視的인 意味가 되는 것은 金日成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마지막 言及이다. 즉, “美國이 南韓으로 하여금 戰爭을 시키지 않는다는 保障이 있다면 우리도 戰爭하지 않는다는 保障을 한다.

이를 위하여 軍備를 축소할 것이며 南朝鮮에 武器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言及이다. 여기에서 보듯이 北韓의 對南政策의 일환으로서 美國의 對南韓 軍事支援에 對한 “차단”이라는 政策이 아마도 “許談案”의 “核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許淡”案의 核心은 美軍이 점진적인 美國의 새로운 政策에서  
기인하는 그 影響은 北韓의 軍事政策이라는 角度에서 對美政策이라  
는 形式으로 새로운 接近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美軍의 撤収에 따라서 美國의 對韓 軍事支援 혹은 “補  
完”이라는 形態로 막대한 軍事支援을 할 것을 예상되고 있고 이  
에 對한 “차단”을 北韓은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南北韓軍事 밸런스에 있어서 중요한 要因的 變化가 될 것이기 때  
문인 것이다.

이는 앞으로 南北韓關係에 대한 새로운 展開나 展望에 對한 重  
要하고 基本的인 암시를 주는 것이라고 評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許淡”의 “對美平和協商”을 기점으로 한 分析은 기점  
으로 하여 南北關係와 이에 影響을 주는 새로운 要因들을 찾아  
본다.



分析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 I. “美帝”에서 “美国”으로 13)

“카터”政權이 후부터 北韓은 美国을 지칭하는 말로서 “美帝”라는 30여년간 使用하여 오던 政治用語를 점차로 중단하기 시작하였고 現在도 그러하다. 北韓의 對美 호칭에 있어서 “美帝”라는 말을 使用하기는 하나 “美国”이라는 公式用語도 並行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1977年 2月7日 北韓 傀儡軍 創軍記念日에서 “期年報告”하는 석상에서까지 “美合衆國”이라는 말을 使用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물론 “카터”政權에 대한 接近政策을 試圖하는 것이라는 意圖에서 임을 말할 必要없는 것이다. “許淡”案의 기원에서 부터 緣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 政府는 이를 단순한 偽裝 平和攻勢로 評價하고 있으나 실 제상은 “協商的”性格으로 把握해야 하리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變化는 77年初의 “非同盟會議”에서의 發言에서도 對美 非難을 緩和시키는 데서도 나타난 것이다.

### II. 金日成의 對美 “메세지”

“카터”政府는 北韓으로 부터 76年 9月과 77年 1月 두 차례에 걸쳐서 “메세지”를 접수하게 되었다. 그 內容은 “非政治的 交流를 제외한다”는 것으로 美国政府가 韓國政府에 알려 온 것이다. 사실상의 內容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1. “카터”大統領의 當選을 祝賀한다.

## ㄴ. “美國과 外交채널을 트자”

## ㄷ. 安全保障에 對한 言及 즉 “保障論”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의 전달은 “파키스탄”의 “부토” 大統領을 통하여 間接的인 “메세지”形式으로 전달된 것이다. 14) 두차례 모두가 “부토”를 통하여 전달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北韓의 對南戰略의 일환으로서의 對美接近政策은 “카터”政權 취임후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고 韓半島 安全에 크게 影響을 주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 III. 美國의 重要한 反應

이러한 北韓側의 對美直接的인 接近에 對하여 즉각적인 反應은 南北會談을 전개 한다면 對北接觸을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外交的인 反應은 그 後에 나타나고 있다. 즉 77年 6月 12日 “크리스터퍼” 國務次官의 言及으로서 처음은 美國은 北韓과 接觸 혹은 “修交”를 希冀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15) 물론 이는 一般的으로 美國이 단교하고 있었던 10여개국에 對한 言及의 일환으로 나오고 있으나 실제상은 北韓에 對한 言及이 直接 나온 것은 처음이었다. 이러한 言及은 77年 6月 12日 “로스앤질러스”의 한 大學의 演說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이어서 日本側에서도 美國과 北韓間의 “正常化”를 위한 “非公式會談”이 開催될 것이며 事절을 파견할 것이라는 추측보도가 나오게 되었다.<sup>16)</sup>

#### IV. “許淡”의 美國訪問

“許淡”의 美國訪問은 極히 상징적인 것이었다. 77年 9月 27日 “許淡”이 外相으로서는 처음으로 美國을 訪問하게 되었다는 그 自体가 政治적으로 重要的한 일이었다.<sup>17)</sup> 이는 “유엔本部 協定”에 따라서 뉴욕에는 倂저버로 北韓代表團이 入國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對美平和協商案”을 제의하였던 “許淡” 스스로가 뉴욕에 入國하였다는 그 自体가 重要的한 것이었다.

더욱이나 일부 非公式 소식통은 “許淡”의 美國入國에서 단순한 政治的 次元에서 만이 아니라 經濟的인 次元에서 “록크펠라”側혹은 “체이스 맨하탄”銀行 누취와 회담을 하였다는 說도 있는 것이다.<sup>18)</sup> 그후 여러 소식통은 누계 약 16億弗의 北韓 도입과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間에 北韓의 對美接近의 重要的한 고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許淡”은 公式的으로는 “美國”과의 關係改善”을 希望한다고 發言한 것이다. 이는 극히 公式的 發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美國에 왔다는 事實이 重要하다”고 말하고 있듯이 事實上 北韓의 外相이 公式的으로 美國에 왔다는 事實이 이미 南北韓關係에 크게 影響을 미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韓美關係의 “軍事同盟關係”는 事實上 北의 “위협”을 전제로 하여 形成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만일 北韓이 公式的으로 美國과 接觸한다면 그 순간 韓美防衛條約은 허공에 뜨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V. “봉고”에 의한 北韓의 對美接觸 의사 전달<sup>19)</sup>

外交的으로는 重要한 일은 아니나 “가봉”의 “봉고”大統領을 통하여 “카터”大統領에게 친서가 전달되었다는 점이다. 國務省도 “봉고”를 사이에 두고 “意思交換”을 하였다는 것이 事實이라고 公式的으로 認定하고 있다는 점에서 重要한 것이었다. “봉고”大統領에 의한 친서의 內容은,

첫째 平和協定 締結

둘째 對美關係 改善 希望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金日成의 구두 메시지를 받아 “봉고”大統領이 전달한 것으로 外交的인 形式으로 되어 있다. 다른 소식으로는 역시 “許淡”案 이래의 保障論이 제기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첫째 : 美國과 直接 交渉한다.

둘째 : 直接 韓半島 問題를 解決한다.

셋째 : 北韓은 南侵을 도발할 의사가 없다.

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초위 “對南保障論”인 것이다. 이는 이미 說明하였듯이 “許淡”案의 重要한 韓半島安全의 再編成에 對한 北韓의 公세인 것이다.

## VI. 美國의 北韓旅行 解除

美國은 北韓에 對해 美國市民이 여행할 것에 制限을 철폐한다는 公式的 立場을 취하였다.<sup>20)</sup> 여기에는 물론 美國內에서 영주권을 갖고있는 韓國人들도 北韓을 理論上으로는 訪問할 수 있다는 論理가 되는 것이다.

이가 미치는 南北韓關係에 對한 影響은 크다고 할 수 있다. 南北韓關係의 “社會的 關係”는 事實上 完全한 단절이었다고 할 수 있다. 美國을 매개로 하여서 南北韓間의 人的 交流가 進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南北韓間的 현상타파의 다른 形態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美國市民의 北韓訪問의 政治的이며 社會的 의미 나아가서는 經濟的 측면에서 重要한 의미를 가질 것 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다.

이미 “록펠러” 재벌측이 北韓과의 非公式 接觸說과 資金流入說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이를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VII. “티토” 大統領과 金日成間的 領首會談과 韓半島 問題

韓半島의 安全體系에 대한 再編成이라는 角度에서 美國에 대한 北韓의 接近政策을 통한 北韓의 對南政策 중에서 가장 重要한 性格을 띄고 있었던 것이 “티토”의 平壤 訪問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sup>21)</sup> 그 重要性을 몇가지로 区分하여 分析하여 보기로 한다.

#### 1. 金日成의 對美 중계자로서의 “티토”

金日成은 “티토”를 對美 채널로 지명한 듯하다. 過去에 있어서도 金日成 第3世界 指導者와의 對話를 거론하면서 美國을 중계하고 있는 것으로 言及되고 있었다. 金日成은 國際情勢의 判斷으로 “티토”를 중계자로 하여 본격적인 對美接近政策으로 나가

고 있는 것이다.

事實上 金日成은 “티토”를 항상 “修正主義”의 대변자로 낙인을 찍고 있었고 政治的으로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다. “티토”를 修正主義 代表者로 하여 北韓의 對南政策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지도자로 간주되고 있었던 것이다.

金日成은 “티토”를 利用하여 對美 說得의 政策 手段으로 한 것이다.

#### ㄴ. “티토”의 對 “카터” 메시지

“티토”의 平壤 訪問以前에 이미 北韓과의 外交接觸을 통한 對美政策의 메시지 問題가 外交的으로 협의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外交協議를 “티토”나 北韓이 했다는 점이다. 유고슬라비아의 第2人者인 國家平議會議員인 “에드바드, 카르텔”로부터 카터는 “티토”의 親書를 받고 “카터”는 처음으로

“韓國側이 參與할 수 있다면 나는 北韓사람들과 만나고 싶다”고 言及한 것이다.

또한 “에드바드, 카르텔”은 “티토”의 “親書”를 휴대하고 있었고 그 親書에는 北韓의 對南政策에 대한 內容이 外交文書形式으로 담겨져 있는 듯하다. 적극적인 平壤側의 의사 전달을 한 것

으로 評價되는 것이다.

ㄷ. “티토”는 平壤을 8月中 訪問하였고 金日成과의 单独會談을 進行 시켰다.

金日成과 티토간의 協談 內容은 대략 아래와 같은 것으로 傳해지고 있는 것이다. “티토”의 平壤訪問과 金日成과의 會談內容은 過去의 단순한 메세지 形式의 間接的인 “시그널”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北韓으로서는 本格的인 對美 接近政策의 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內容 혹은 討議의 內容을 보면 아래와 같은 것으로 傳해지고 있다. 즉,

“카터側이 北韓에게 문의한 內容은,

(1) 戰爭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하는 “戰爭保障”에 對한 問題.

(2) 南北韓 政治會談은 어떻게 處理할 것인가 하는 問題에 對한 질의와 의사 타진. 22)

이에 對해 “티토”는 金日成과의 會談에서 다음과 같은 反應을 얻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즉 “티토”가 平壤訪問을 하고 귀국한 後 “카터”에게 자세한 “報告書”를 傳達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反應의 內容은,

(1) 戰爭은 하지 않는다. 이것은 事實上 金日成이 “許淡”案 이래 하여 온 상투적인 “對南保障論”인 것이다.

(2) 南北對話에 대하여서는 言及없다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이 이상의 內容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티토”로서는 金日成과의 對話內容을 자세히 報告書 形式으로 카터에게 傳達하였다는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北韓은 美國을 說得하려 하였었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주목할 것은 “카터”大統領의 反應問題이다.

“카터”大統領은 이에 대해 “部分的으로”만족하였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상이 “티토” 平壤訪問의 內容인 것이다. 여기에서 問題點은 다음과 같다. 특히 南北韓關係에 繼續적으로 크게 影響을 미칠 要因을 充分히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티토”의 外交中繼는 사실상 1974年의 “許淡”의 “對美平和協商案”에서 기원하는 장기적인 일련의 北韓의 對南政策의 일환으로서의 “對美接近政策”이라고 評價할 수 있는 것이다. 그 內容은 1974年 “許淡”案 提議 後 곧 있던 日本의 “우즈노미야”와의 對談에서 提起 시키고 討議한 內容을 分析한다면 그 범주를 벗어 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美國에 對해서는 “티토”를 通해서 “對南保障論”을 앞으로의 韓半島에 對한 政治的 解決과 결부 시킬려는 方向으로 具體化하였을 것이 라는 점이 重要的 것이다.

#### ㄹ. “카터”의 反應

“티토”의 親善에 對한 美國의 反應은 基本的인 意思表示와 政治的 意思表示로 区分할 수 있다. “티토”가 한 報告書에 對해서 “部分的으로 만족하였다”라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카터”의 反應은 보다 그 次元을 달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反應의 要點을 보면 아래와 같다.

- ㄱ) “티토”大統領을 78年 봄에 워싱턴으로 초청한다.
- ㄴ) 美國의 對北韓 政策은 變化를 意味하지 않는다.
- ㄷ) 韓國이 參加한다면 美國은 北韓과의 會談을 할 용의가 있다.
- ㄹ) 美國이 바라는 것은 北韓과의 會談이 아니라 韓半島의 “安定”이다.

라는 反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美國은 總래의 基本的 立場을 公式的으로 取하고 있다. 그러나 “티토”라는 政治的 人格이나 金日成의 積極적인 對美協商意圖 등을 감안할 때에 앞으로

“南北韓 關係”의 전개양상을 암시하는 重要한 要因이라고 評價할 수 있는 것이다.

“티토”의 美國, 北韓中繼에 대한 政治的 意味은 앞으로 南北韓 關係에 대한 基本的인 問題點을 擡게 할 것이라고 본다. 즉,

美國은 일단 北韓에게 “南北韓 會談”을 承認하면서 同時에 北韓에 對한 兩者 會談의 “非公式化”를 進行할지도 모를 일인 것이다. 이점에서 앞으로의 “南北韓 關係”의 展開 樣相에 크게 影響하리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 第四章 北韓의 勞動黨과 政策決定體系의 變化

以上에서 “許淡”의 “對美平和協商案”의 提議에 對한 分析과 이를 中心한 南北韓關係의 展開 樣相에 關한 諸要因을 分析하였다. 本章에서 論하고져 하는 것은 이상의 “許淡”案을 基點으로 하여 展開되는 南北韓 關係라는 것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問題點은 北韓의 勞動黨의 政策的인 “발상” 그 自体의 本質的인 變化라는 點이다. 앞으로 對南政策을 그의 展開에서 근원적으로 우리가 점점하고 分析해야 할 것은 北韓의 勞動黨의 核心部의 政策決定體系 그 自体가 여러가지 點에서 變質하고 있다는 點일 것이다. 事實上 北韓의 勞動黨이라는 것은 共產世界에서도 가장 경직성을 띠고 있었던 共產黨이었다. 北韓의 共產黨은 極히 “教條主義”的 이었으며 특히 “戰爭問題”라는 南北韓關係에 있어서 추호도 그의 立場을 양보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의 “暴力的”立場을 그의 政策에서나 對南戰略이라는 觀點에서나 혹은 實際上 軍事的으로나 對南工作次元에서나 強力한 立場을 取해 온 것이다. 그 特徵을 우선 보면,

## 第一節 北韓의 對南政策 및 戰略의 基本性格

過去에 있어서의 北韓의 對南戰略의 基本的 性格은 實際上 韓國 戰爭이라는 것을 거치면서 “戰爭政策”에서 기원하였었다고 할 수 있다. 23) 北韓의 對南戰略이라는 것은 그 기원에서 韓國戰爭을 中心하여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對南戰略은 戰爭政策的인 性格을 強力하게 띄고 있었다. 對南戰略의 기초적인 발상이나 政策決定過程이라는 것은 항상 戰爭이라는 것을 中心하여 進行시켜 온 것이다. 對南戰略을 決定한 過程을 하나 검증하여 보면 그러한 性格은 명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最少限 北韓의 對南政策 혹은 對南戰略은 戰爭을 中心하여 그의 政策決定을 하여왔고 戰爭과 항상 연결시키면서 對南戰略을 展開시켜 온 것이다.

따라서 對南戰略이라는 것은 北韓의 對南革命政策이라고 할 때에 두드러지는 그 特徵은 “첩보전”의 性格을 띄고 있었던 것이다. 北韓의 對南政策이라는 것은 外交的인 宣傳次元의 問題를 제외하고서는 長期間에 걸쳐서의 特徵은 실천정책으로서는 完全히 “첩보政策”이라는 形態로 나타나 왔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北韓의 對南政策은 “첩보次元”의 對南政策은



現實的으로는 “工作”이라는次元에서 進行되어 온 것이다. 北韓의 對南政策의 政策決定過程이나 個別的인 政策決定 혹은 실천에서 볼 때에 항상 “工作”이라는次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은 “工作”이라는次元에서 “宣傳”이라는政治的次元에서도 역시 “宣傳工作”이라는次元에서 항상 그의 對南政策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北韓은 따라서 “對南工作”이라는次元에서 對南政策 혹은 對南戰略을 展開하여 온 것이다. 이는 北韓의 對南政策에서 항상 뒤따르는 “統一政策”과도 직결되어 온 政策이다. 北韓은 韓國戰爭以來 統一政策에 항상 “暴力”으로 處理하려는 戰爭政策에서 연유하는 것이었다. 統一政策에 對한 暴力革命의 “適用”을 “工作”이라는形式으로 실천하여 온 것이다. 이는 北韓의 “統一政策”은 “戰爭政策”을 中心하여 進行시켜 온데서 나온 政策的인 발상이거나 혹은 政策決定體系가 그의 “組織”에서나 “발상”에서 完全히 “工作”次元의 水準을 넘지 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對南政策을 責任지고 있는 政策決定機構나 體系는 大部分이 “工作機關”的인 性格을 띄고 있거나 勞動黨의 “對南連絡局”이라는 것이 이의 代表的 例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政策決定

機構나 實踐機構를 對南戰略이라는 角度에서 점검하여 보면 쉽게 이것이 나온다.

첫째 北韓의 勞動黨이다. 北韓의 勞動黨은 對南戰略에서 總體的인 決定機構이며 同時에 實踐機構인 것이다. 對南工作이라는 데서 軍事的인 次元에서나 政治的인 次元에서나 “對南工作”을 指揮하는 機構인 것이다.

事實上 中央黨 連絡部로 表示되는 對南政策의 核心機構이며 工作次元에서 指揮하는 總體的인 政策決定機構인 것이다. 對南政策에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機構인 것이다. 실제상 北韓의 對南政策이 얼마나 軍事的인 意味를 띄고 있었는가를 알려면 그 밑에 있는 各種 “工作機構” 즉 “유격지도처”(526軍部隊), 각종 政治學院 등이 거의가 戰爭政策的인 工作機構임을 알게 되면 쉽게 評價되는 것이다.

·이러한 北韓의 對南工作이 對南政策決定體系에서 “民族保衛省”(現在는 人民武力部) “內務省”등도 大部分이 對南政策과 관련하는 決定體系나 實踐政策을 가질 때에는 거의가 “工作”이라는 次元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었다.

1970年代에 이르기까지의 對南政策의 特徵은 따라서 戰爭과 工作

이라는 形式이 그 實際上的 特徵이었으며 일관된 北韓의 對南政策의 基本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아래에서 論述한 1970年代 以後의 對南戰略 혹은 對南政策과는 극히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1970年代까지의 對南戰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1970年代에 이르면서 北韓의 對南戰略은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變化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960年代까지의 “工作”次元의 對南戰略이 “7·4 共同聲明書”를 기점으로하여 처음으로 問題가 제기 되었으며 다시 美軍 撤収라는 要因이 北韓의 對南戰略을 근본적으로 修正하도록 強要케 하는 要因이 되었고 이러한 것이 종합적으로 作用하여 北韓의 對南戰略性格을 새로운 次元으로 변모케 하는 새로운 南北關係의 展開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大轉換”의 기점이 北韓의 對韓政策 즉 “許淡”의 “對美平和 協商”을 기점으로 하며 北韓의 對南政策의 變化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許淡”의 “對美平和協商案”이라는 것은 단순한 “對美接近政策”이라기 보다는 高度의 종합적인 北韓의 “對南政策”의 轉換의 意味로서 把握하여야 하리라 보며 앞으로의 對南政策의 展開와 양상의 기초라고 評價된다.

## 第2節 労働党의 政策決定体系의 變化

“許淡”以來의 “對美平和協商案”에서 基因하는 以上이 일련의 分析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北韓의 労働党의 對南政策의 本質的인 變化의 側面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許淡”의 “對美平和協商案”에서 基本的으로 北韓이 對南政策을 修正하고 있다는 점이 確實히 발견된다. 또한 특히 労働党의 政治局이라는 核心的 政策決定 機構의 母體의 質的 變化없이는 이러한 “許淡”案에서 基因하는 일련의 變化를 說明할 수 없다.

“許淡”案의 “對美平和協商”案은 단순한 對美外交戰略에서 기인하는 諸要因으로 把握하기 보다는 労働党의 政策決定体系의 變化라는 角度에서 分析하는 것이 精確한 것이라고 評價된다.

北韓의 労働党의 對南政策을 決定하는 労働党 “政治局”의 발생 그 自体가 變質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측면이 특히 “許淡”의 “對美平和協商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許淡”의 “對美平和協商案”에서 労働党 政治局은 처음으로 北韓의 對南戰略의 基本인 原則들을 “修正”하여 들어 갔다는 점이다.

北韓에 있어서 “美軍”은 最大의 敵이며 “美軍”에 대한 “平

“和平主義”라는 것은 修正主義의 本質이라고 하고 있었으며 “和平主義”라는 것은 北韓의 對南戰略이나 政策에 最大의 “修正主義”로 간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和平主義”라는 “修正主義”는 北韓의 對南戰略의 基本的인 政策과 정면으로 對峙되는 政策이었던 것이다.

“許淡”의 “對美平和協商案”에서 北韓은 이러한 “和平主義”라는 “修正主義”를 “對美平和協商” 즉 對美接近政策으로 再修正하고 있으며 “美軍”의 駐屯을 일년 認定하면서 美國과의 “和解정책”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美軍”이라는 一次的인 敵과 “和解”한다는 것은 北韓 勞動黨 政治局이 지금까지 原則으로 하던 基本政策 혹은 對南戰略에 대한 本質的이며 근본적인 修正이라고 評價할 수 있는 것이다.

北韓의 “和平主義”에 대한 基本원칙은 아래와 같이 表現되고 있다. 24) 즉,

“和平主義는 戰爭일반을 반대하고 無原則한 平和를 설교하는 부르조아思想 조류이다…… 그들은 帝國主義가 남아있는 條件下에서도 戰爭을 영원히 없애고 平和를 保障할 수 있다고 떠버리면서…… 帝國主義와의 鬭爭을 회피하면서…… 民族解放 鬭爭을 하지

말라고 까지 설교하고 있다…… 平和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世界人民들의 共同的 원수이며 侵略의 주되는 세력인 美帝國主義에 공격을 集中하여 鬪爭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北韓의 勞動黨은 修正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 北韓 勞動黨의 基本政策은 “美帝”에 대한 “타도”였다고 할 수 있으며 對南政策에서 “傀儡政府論”도 이러한 論理的 根拠下에서 政策決定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北韓 勞動黨의 政策決定體系가 變하였다는 말은 물론 北韓 對南 戰略의 目標가 變하였다는 말은 안된다. 그러나 勞動黨 政治局의 基本 政策決定의 方向이나 體系 혹은 決定體系의 母體에서 發生하는 基本이 變하여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를 우리는 共產主義的 “現實主義”라고 하여도 좋은 것이다. “스타린”의 “獨蘇不可侵.”을 통한 스탈린과 히틀러 간의 妥協 혹은 軍國主義 日本과의 不可侵條約 등은 “現實主義”라고 할 수 있으며 北韓 勞動黨이 이러한 궤단을 따르기 시작할 만큼 黨의 “柔軟性”을 展開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對南戰略에서 過去의 直線的이며 “教條的인 政策決定”보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北韓 勞動黨의 政策 決定體系 혹은 발상의 本質的인 變化는 앞으로 北韓의 對南政策에 크게 影響할 것이며 南北韓 關係의 展開 양상에도 크게 影響을 줄 것임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第五章 南北韓關係의 전개양상과 發展 展望

上記에서 論한 變化를 基礎로 하면서 앞으로의 南北關係에서 나타날 수 있는 展開양상 혹은 發展展望에 對한 몇가지 “모델”을 보기로 한다.

여기에서도 역시 “政策的”인 觀點에서 論하기로 한다.

앞으로의 南·北關係展望의 根源과 그 근거는 앞서 論한 몇가지 北韓의 變化를 展開하게 될 것이며 특히 “허담의 對美平和協商案”이 역시 그 근원이 되리라고 본다.

### 第一節 “맨스필드” 모델<sup>25)</sup>

“맨스필드”는 極東에 對한 關心있는 政治적인 경륜가라 할 수 있다.

現在 日本에 駐在하는 美國大使로 있다. “맨스필드”는 極東에 對한 조예가 깊으며 특히 “카터”以後의 極東을 “요리하기 위하여” “카터” 政府에 依해서 極東에 配置된 것으로 되어있다.

“맨스필드”는 韓半島에 對한 構想을 갖고 있는듯 하다.

이미 “맨스필드”는 韓半島에 對한 構想中에서 韓半島의 “中立



化”를 構想하여 發表한 일이 있다.

이러한 構想을 갖고있는 “맨스필드”가 韓國과 가까이 하고 있는 日本駐在 美國大使로서 政治的 活動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그 影響은 앞으로 적지 않으리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맨스필드” 모델을 設定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韓半島의 南·北關係에 크게 影響을 줄 수 있는 要因이 “맨스필드”라고 보기 때문인 것이다.

“맨스필드”案에 대하여서는 상급 具體的인 運轉은 發表되고 있지 않으나 단순히 韓半島의 “中立化”라는 型式으로 表現되고 있을 뿐이고 具體的인 案은 “맨스필드” 個人으로서나 더욱이나 外交的인 次元에서 表現한 일이 없다.

“맨스필드”는 단순히 “오스트리아”式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맨스필드”는 韓國問題를 日本에서 다루게 되었다는 外交的인 入場에 서게 되었다.

最近 “맨스필드”는 北京을 訪問하였고 韓國을 訪問하고 있다.

일설에는 “맨스필드”의 北京訪問에서 相互間에 北韓과 美國이 “非公式채널”을 開設하도록 努力하였다는 外交的인 側面이 있다.<sup>26)</sup>

“맨스필드”는 北京에서 北韓과 美國간의 非公式外交채널을 틈으로서 韓半島의 새로운 展開樣相을 開拓할 努力을 外交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南·北韓 關係의 양상에서 重要한 것은 實現 不可能한 “中立化”라는 것이 重要한 것이 아니라 “맨스필드”가 그러한 構想下에서 南·北韓關係를 새로운 北韓과의 協商을 通하여 韓半島問題를 打開하려는 努力이 보다 重要한 影響을 주리라는 데서이다.

여기에서 “허담”의 “對美平和協商”과의 關係를 外交적으로나 政治적으로 혹은 軍事的으로 相互 고려되는 것이다.

“허담”案과 “맨스필드”案이라는 것이 어떻게 相互 作用할 것인가 하는 問題인 것이다. 重要한 南·北韓關係의 새로운 展開의 모델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第二節 美國의 北韓에 對한 “經濟的인 接近說” 27)

最近 美國이 北韓에 對한 經濟的인 接近을 한다고 하는, 非公開的인 外交 “루머”가 돌고 있다.

근거있는 “루머”로서 內容은 “허담”이 뉴욕을 訪問時에 美國의 록펠러계인 “체이스 맨하탄” 銀行長과 接觸을 하였다는 것으로

서 北韓에 對한 資金流入을 討議한 것으로 되어있다.

여기에서 問題點은 이러한 說이 근거있거나 없거나간에 하나의 앞으로의 南北韓關係의 “모델”로서 새로운 展開의 기점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에서 重要하다고 본다.

이미 美國의 融資가 北韓으로 流入된다는 說은 北韓의 經濟的인 亂局을 기화로 美國이 이를 外交的으로 活用하면서 對北接觸을 經濟的으로 할 수 있다는 假說을 설정할 수 있다는데서 美國의 北韓에 對한 “經濟的인 接觸說”을 하나의 南·北關係의 새로운 展開의 假說로 잡아 두는 것도 可能하리라 본다.

事實上 오늘날 北韓은 約 40億弗의 對外負債를 지고 있는 것으로 日本政府는 把握하고 있다. 一般的으로는 大略 20億 내지 23億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事實上은 約 40億弗로도 추산하고있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事實上 北韓은 經濟計劃에 많은 차질이 있는 것은 이미 公開된 事實보 되어 있다. 北韓이 그 어떤 政治的인 동기나 새로운 政策의 동기가 된다면 이는 經濟的인 “동기”가 될 것은 明白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美國의 월남 타결 시에 “탈라외교”라는 形式을 通하여서 월남問

題解決以後 戰後 복구비를 美國이 제의한 例에서 보듯이 美國이 北韓에 對한 接觸의 機기를 이러한 經濟的接近이라는 것은 可能한 것이다. 勿論 월남에 對하여서는 失敗하였으나 北韓에 對한 接近에서 北韓이 말하는 對南 “保障”에 對한 代價를 政治的인 代價以外에 이러한 經濟的인 “代價”로서 美國과 北韓과의 關係形成을 進行시키지 않을 것인가 하는 假說을 設定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美國의 經濟的인 對北接觸이라는 모델은 앞으로 南·北韓 關係에 큰 影響을 주는 要因임은 말할 必要없는 것이다. 새로운 南北關係의 展開 및 展望의 要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第三節 “키신저”의 “4強에 依한 保障” 外交

혹은 “三者接觸”問題<sup>28)</sup>

“카터”行政府가 들어선 다음에서 “키신저”가 設定하였던 美國의 對韓政策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다만 確實한 政策은 “美軍撤収”를 ‘78年度부터 개시한다는 것이다.

“키신저”가 設定하였던 “美軍撤収”라는 것에 對한 北韓의 代價에 對한 “條件”은 상금 美國에 依해서 접수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과연 美軍撤収와 함께 “키신저”가 設定하였던 “韓半島에 對한 4強保障”이라는 것이 進行될 것인가하는 問題가 今후 南·北關係의 重要한 變動要因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4強에 依한 韓半島保障”은 美國에 依해서 強力하게 表示되고 있는 政策이다.

事實上 “티토”의 北韓訪問以後의 美國의 反應이나 “허담” 스스로가 뉴욕에서의 接觸에서나 尙금 美國은 다음과 같은 基本立場을 견지하고 있기는 하다. 即,

첫째 : 美國의 對北韓接近에는 반듯이 韓國이 介入되어야 한다.

둘째 : 南北對話를 한다면 美國은 北韓에 對한 접근을 할 것이다. 라는 條件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南·北關係의 새로운 양상의 假說이 設定될 수 있다.

即 美國이 北韓에 對하여서 “南北對話”를 條件으로 한다는 것이다. 即 “3者會談”의 時間적으로 “同時性”인가 아닌가하는 問題인 것이다.

南·北會談은 形式的으로하고 美國과 北傀와의 “兩者會談”의

可能性인 것이다.

美國과北韓과는 兩者會談形式으로 하면서 同時에 南北會談을 再介한다는 條件인 것이다. 이러한 可能性은 앞으로 美國의 態度로 보아서 漸次 現實化될 수 있으리라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4者會談”이라는 論點에서 “3者會談” 即 韓國과 美國 및 北韓間의 會談의 可能性에서 “키신저”가 이미 암시하였듯이 3者會談의 “同時性”인가 “非同時性”인가 하는 問題는 重要한 南北關係의 展開樣相을 낳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第四節 北韓의 “軍縮提議”

北韓의 具體的인 美國에 對한 접근政策의 提議는 “카터”行政府가 가장 主力하는 韓半島에서의 “軍縮提議”를 어떤 形態로든 間에 할 수 있다는 前提를 할 수 있다. 事實上 “허담”案의 核心은 大部分이 “軍縮”에 關한 條項인 것이다.<sup>29)</sup>

“허담”案의 核心은 事實上 첫째 74年發表時에는 韓國軍에 對한 “現代化計劃”을 차단하는 것이며 現在의 “허담”案의 意味는 美軍撤収에 對한 協議를 提議하면서 同時에 美軍撤収에 對한 “軍事的인 美國의 對韓 軍事” “보완”에 對한 저항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허담”案의 政策的目標은 美國에 依한 南韓에 對한 軍事支援을 美國과의 協商에서 차단하려는 것이 그 目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南·北韓關係의 새로운 展開에서 重要的 要因은 “軍事的인 要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提議를 北韓이 美國에게 大的으로 提議할 可能性이 있다고 본다. 그 理由 또는 提議動機는 美軍撤収에 따른 美國의 對南軍事 “補完”에 對한 北韓이 軍事的인 공포에서 나올 수 있는 政策的提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最大의 目標은 “허담”案에서 明白히 하고 있듯이 美國의 對南軍事補完 혹은 現代化를 增強시킬때에 南·北韓의 “軍事밸런스”가 뒤엎어질 可能性에 對한 北韓의 우려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事實上 南·北韓의 最大의 協商問題와 協商對象은 美軍撤収를 中心한 앞으로의 南·北韓의 “軍事均衡”을 어떻게 南北韓이 各己 有利하게 展開할 것인가 하는것에 모든 南·北韓問題가 달려 있기 때문인 것이다.

北韓은 “허담”案에서 부터 始作하여 이러한 南北韓 軍事밸런스  
에 對한 政策的인 關心이 그 基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北韓에 對  
한 “各種의 軍縮提議”가 어떤 形態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것은  
南北韓의 새로운 發展에서 重要的 要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第六章 結 論

以上에서 南·北關係의 양상과 發展展望에 對한 몇 가지 問題點을 特히 1974 年에 北韓이 提議한 “허담”의 “對美平和協商”案을 起點으로하여 政策的인 觀點에서 論하였다.

앞으로의 南北關係의 양상은 역시 그 기원을 “허담”의 “對美平和協商案”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하여 展開되리라 볼 수 있다.

여기에서 注目할 일은 “허담”의 “對美平和協商”案을 通하여 본 北韓의 勞動黨의 政治局의 政策決定 및 發想 그 自体가 本質的인 變化를 經驗하고 있다고 評價할 수 있으며 이러한 本質的인 變化의 意味는 앞으로 南·北韓關係에 實質的인 變化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北韓이 새로운 提議를 한다 하여도 “허담”의 “對美平和協商”案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勿論 그 最大의 目標는 앞으로 南·北韓의 “軍事밸런스”에 對한 北韓의 有利한 入場을 전지 한다는데에 모든 對南政策의 核心과 目的이 있음은 말할 必要도 없으며 南·北關係의 “동기”가 될 것이며 이러한 “동기”를 기초로 하여 장래의 南北關係의 展開가 있으리라 본다.

## 註

- 1) 本論文에서 필자의 個人的 “인터뷰” 資料等に 많은 依存을 하였음으로 加급적 必要的 註 以外에는 一般的인 Source 에 對하여 생략하였음.
- 2) 필자는 “허담” 案이 最近의 南北韓關係의 새로운 次元으로 그 起點을 잡는다. 앞으로 南北韓關係에서도 重要的 要因이 된다고 評價한다.
- 3) “한글文” 과 “英文” 이 同時 혹은 “한글文” (연설) 前에 英文이 發表된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英文이 重要的 研究對象이라고 볼 수 있다.
- 4) 여기에서 認定이라 함은 “事實上의 認定” 을 意味한다. 北韓은 계속 “美軍撤収” 를 主張할 것이다. 그러나 “政治的口號” 와 “協商次元” 과는 区分해야 한다.
- 5) 現在 左翼의 大部分도 “美軍의 韓國포기” 를 信仰처럼 生覺하고 있다. “美國은 중국적으로 韓半島를 포기할것” 이라는 思想에 가깝다.

6) 過去 北韓은 많은 “宣傳次元”의 비슷한 主張을 하여 왔으나  
“協商次元”의 主張은 最小限 “美軍駐屯”에 關한 限 없었다.  
“허담”案은 “協商次元”이라고 評價한다. 이에서 過去の  
“宣傳次元”과는 区分한다.

7) “金日成”과 “宇都宮”會談內容은,

“每日新聞” ( 1974. 8.22 )

( “ ” 23 )

( “ ” 27 ) 에 자세히 發表되고 있다.

金日成의 “意圖”가 잘 감추어지면서도 노출된 資料라고 본다.

三次에 걸친 會談이 있었다.

8) “每日新聞” ( 1974. 8.22 日字 )

第三次會談 “北과 美國”參照

9) 同 上

10) 美軍의 韓國軍에 對한 “作戰指揮權”을 意味한다고 본다.

11) 對美·對南韓保障論을 意味한다고 評價한다.

12) “對美保障論”은 앞으로 不可侵論議의 基礎가 될수도 있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를 目標로 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金日成은 “自然스럽게 發生하는 革命”은 對南韓保障論에

서 빼고있다. “金大中이나 윤보선이가 共産主義者가 아니다”  
라고 說明하고 있다.

13) “서울新聞” ( 1977. 2. 10 日字 ) 参照

이는 1976年 8. 18 事態라는 심각한 분위기에서도 北韓側이  
판문점會談에서 역시 “美國” 또는 “貴側”이란 用語를 使用하  
고 있다.

14) “中央日報” ( 1977. 10. 1 日字 ) 参照

“朝鮮日報” ( 1977. 9. 27 日字 ) 参照

15) “東亞日報” ( 1977. 6. 13 日字 ) //

“한국日報” ( 1977. 6. 14 日字 ) //

16) “東亞日報” ( 1977. 6. 24 日字 ) //

17) “東亞日報” ( 1977. 10. 3 日字 ) //

“東亞日報” ( 1977. 9. 29 日字 ) //

“한국日報” ( 1977. 9. 30 日字 ) //

18) 個人 “인터뷰” 資料에 의함.

19) “中央日報” ( 1977. 9. 28 日字 ) 参照

20) “東亞日報” ( 1977. 3. 9 日字 ) //

21) “朝鮮日報” ( 1977. 10. 2 日字 ) //

22) 個人 “인터뷰” 資料에 의함.

23) 中情 “北韓의 對南工作史” (第一, 二卷) 1972.

本節은 上記 2 卷을 参照하였다.

24)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용어사전”. 평양 1971年 p.624 参照

25) 個人 “인터뷰” 資料 및

Mike mansfield, “U.S. Foreign Policy in a Changing Pacific a asia” (Pacific Community, vol, V, No.4.

(July, 1974), p.483 参照

26) 個人 “인터뷰” 資料에 의함.

27) 個人 “인터뷰” 資料에 의함.

28) “서울新聞” (1977.10. 3日字) 参照

허담이 日本 “共同通信” 과의 會見에서 “三者會談을 시사하였다. 다만 “協商過程” 에서만 단서를 달고있다.

29) “허담” 案의 具體的인 內容은 거의가 軍縮에 關한 것이다.

“서울新聞” (1974. 3.29日字, 拙稿 “北傀의 對美協商提議)

参照.

SECRET

CONFIDENTIAL

CONFIDENTIAL

CONFIDENTIAL

CONFIDENTIAL

CONFIDENTIAL

CONFIDENTIAL

CONFIDENTIAL

CONFIDENTIAL

CONFIDENTIAL

CONFIDENTIAL

CONFIDENTIAL

CONFIDENTIAL

CONFIDENTIAL

CONFIDENTIAL

CONFIDENTIAL

CONFIDENTIAL